

《祝 辞》  
《축 사》

金 聖 二  
김 성 이

前 韓 国 保 健 福 祉 家 族 部 長 官  
전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祝 辞

金 聖 二  
前 韓国 保健福祉家族部  
長官

### しあわせな福祉へ

人は仕事をしようと生まれました。仕事を通して人間は自己満足でき、自己実現できます。仕事をしようとすれば、お互いに会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だから出会いは重要なのです。

大橋謙策先生、高橋重宏先生、炭谷茂先生、尹基先生など、日本の社会福祉界と韓国の社会福祉界の出会いは必然で、必要な出会いでした。隣国の両国がお互いの発展のため、また、隣国を援けるために福祉という名で出会ったことは、本当に美しいものです。

今、社会は「仕事」に関心がたくさんあります。社会福祉界でも仕事する福祉に対する関心が非常に高いのです。西欧では仕事を「welfare to work」または「workfare」と呼びます。福祉対象者が仕事するようにし、仕事しなければ福祉対象者から除外させられます。

この概念を受けて、我が東洋では「生産的福祉」と翻訳して使っています。「workfare」と呼ぼうと、「生産的福祉」と呼ぼうと、皆、経済と関連しています。経済に根をおいた福祉形態なのです。

これからは「仕事」させようとする福祉でなく、「仕事」と「福」を一緒にくくる福祉はできないでしょうか？

「welfare to work」でなく、「work to happy」とな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のです。「welfare to work」は管理的なおいがします。しかし「work to happy」は、人間

的なにおいが強くするような気がします。

地域福祉も今や変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仕事とともに福を与える地域福祉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地域福祉行政もまた管理でなく、人間中心的に運営され、地域住民にしあわせな生活を与えることのできる方法の講究から出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今、日本の社会福祉界と韓国の社会福祉科がともに出会い、地域住民をしあわせにする仕事に対して語りましょう。仕事が「労働」でなく、「楽しい事」となるようにする方策を頭をつき合せて話し合ひましょう。

# 축 사

김 성 이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행복한 복지로

사람은 일하려고 태어났다. 일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만족을 할 수 있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 일을 하려면 서로 만나야 한다. 그래서 만남은 중요하다.

오하시 겐사쿠, 다카하시 시게히로, 스미타니 시게루, 윤기 선생 등 일본 사회 복지계와 한국 사회 복지계의 만남은 필연의 만남이었고, 필요한 만남이었다. 이웃의 두 나라가 서로간의 발전을 위해 또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복지라는 이름으로 만난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다.

지금 세상은 ‘일’에 관심이 많다. 사회복지계에서도 일하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서구에서는 일을 ‘welfare to work’ 또는 ‘workfare’라고 부른다. 복지대상자를 일하도록 해야하며, 일하지 않으면 복지대상자로부터 제외시킨다.

이 개념을 받아들여 우리 동양에서는 ‘생산적 복지’라고 번역하여 쓰고 있다. ‘workfare’라고 부르던 ‘생산적 복지’라고 부르던 다 경제와 관련되어있다. 경제의 뿌리를 둔 복지형태이다.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하는 복지가 아니라 ‘일’과 ‘복’을 함께 묶는 복지는 될 수 없을까?

‘welfare to work’이 아니라 ‘work to happy’가 되도록 하자는 말이다. ‘welfare to work’은 관리적 냄새가 난다. 그러나 ‘work to happy’는 인간적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 같다.

지역복지도 이제 바꾸어야 한다. 일과 함께 복(福)을 주는 지역복지가 되어야 한

다. 지역복지행정 역시 관리가 아니라 인간중심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주민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로부터 출발해야한다.

이제 일본 사회 복지계와 한국 사회 복지계가 함께 만나 지역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거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일이 ‘노동’ 이 아니라 ‘즐거운 일’ 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